

ESG

Weekly Focus



ESG 방인성_02)368-6145_isbang@eugenefn.com

E (Environment)

주간 국내 기사

- 기후솔루션 "대기업 간 탄소중립 밸류체인 첫 사례 나와...전기-철강-차 공동 협약" *녹색경제신문*
- 롯데케미칼, 6000억 투자해 친환경 소재 경쟁력 키운다 *파이낸셜뉴스*
- 볼보-노스볼트, 스웨덴에 50기가 배터리공장... "탄소발자국 줄인다" *아시아경제*
- 삼성, 갤럭시S22에 '해양 폐기물 재활용 소재' 적용한다 *서울경제*
- RE100 기업들 "한국, 재생에너지 장벽 커...조달방법 부족" *연합뉴스*
- 선진국 100%, 국내 0% 수두룩...기업 재생에너지 전환율 *이코노미스트*
- 지구를 병들게 하는 플라스틱 칫솔... 칫솔 쓰레기 2200만톤 버려져 *ESG경제*
- 모닝글로리 필통서 환경호르몬 검출... '과일봉제필통' 전량 리콜 *뉴스1*
- 해중, RE100 이행 위한 '태양광 발전 전환 시스템' 특허 출원 *뉴스1*

G (Governance)

주간 국내 기사

- 'CJ 장남' 이선호, 100억원 주식담보대출... 승계 작업 착착 *머니투데이*
- SKC, 부실 자회사 유상증자 참여 무죄 판결... 지배구조 개선 계기 삼아야 *ESG경제*
- 포스코 "지주사 전환은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 *세계일보*
- 매각 실패한 손정의, ARM CEO 교체 '초강수'... 상장도 '공식화' *아이뉴스24*
- 신세계그룹, 현대백과 경영승부? 여의도 IFC 인수전 1차 입찰 참여 *노컷뉴스*
- 하나금융지주 10년 만에 회장 교체... 함영주 신임 회장 과제는 *ESG경제*
- LS일렉트릭, 'ESG-여성' 키워드로 재편 *더벨*
- 알짜 '쪼개기 상장' 들끓는 여론에... "시범 케이스 될라" 기업들 물적분할 일단 멈춤 *서울경제*
- GS건설 자회사 GS이니마, 베트남 수처리업체 지분인수 *경향신문*

S (Social)

주간 국내 기사

- 확진자 급증에 산업계 방역 '고삐'... 재택-원격근무 확대 *세계일보*
- 삼표산업 지배구조 리스크 확산, 각자 대표 입건 *데일리임팩트*
- 삼성전자, 53년 만에 첫 파업? 대의원대회까지 운명의 일주일 *이코노미스트*
- 경총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뉴스1*
- 판교 공사장서 2명 추락사... 고용부 '중대재해법 2호' 수사 *뉴스1*
- "일주일만에 규제 입법 똑딱... 정치 논리가 시장 기능 떨어뜨려" *서울경제*
- 포스코, QSS 전문가 양성 '안전 최우선'으로 개편 *뉴스1*
- 쿠쿠 직원 자살 뒤 드러난 운영 실체... '대리 결재' 빈번 *이코노미스트*
- 제주항공, 용모 규정 개정에 직원들 반발 *조선비즈*

연기금 & 스튜어드십 코드

주간 국내 기사

- 대기업 10곳 중 8곳 "올해 ESG 사업예산 인력 더 늘린다" *이데일리*
- 2022년 정기 주총 핫이슈는... 배당, 지배구조, 정관변경, 기업분할, 주식매수청구권 *ESG경제*
- 국민연금, 25일 주주대표소송 수탁위 일원화 논의한다 *서울경제*
- 국내은행, 국격 높이는 글로벌 ESG 행보... K-ESG 트렌드 주도 *녹색경제신문*
- 뉴욕주 연기금, 셰일가스 주식 절반 매각... 2억3800만 달러 규모 *ESG경제*
- 프린트할수록 나무가 자란다고?... HP의 상식파기가 ESG경영에 던진 화두 *한국일보*
- 블랙록 래리 핑크 CEO "차기 유니콘 기업 1000개는 그린기업에서 나올것" *글로벌비즈*
- 급물살 탄 ESG까지 분석... 의결권 자문사 '인력난' *이데일리*
- 미국에 이어 EU 금융당국도 신평사 ESG 요소 반영 미흡 지적 *ESG경제*

주 : E, S, G, 연기금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사 내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됨.

ESG FOCUS UPDATES

일본 증권업계의 ESG 대응 현황

- 자본시장연구원 22.02.07

A

- 전 세계 지속가능투자(Sustainable Investment)의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ESG 투자에 대한 강화 기조가 확산되고 있음
- 2020년 일본의 지속가능투자는 2조 8,740억달러로 미국, 유럽에 이어 전세계 규모의 8.1%를 차지하였으며 2018년 대비 31.8%증가함
- ESG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일본 내 ESG 채권 발행규모 또한 급증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발행 규모는 5조 7,107억엔에 이룸
-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ESG 채권의 발행규모는 1조 6,554억엔이며 사회적채권 46.3% 녹색채권 31.4%, 지속가능채권 2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5년 일본공적연금(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 GPIF)이 ESG 투자에 나서면서 확산되기 시작하였음. GPIF는 2017년 ESG 투자를 도입한 뒤 2020년에는 ESG 투자대상을 주식에서 전체로 변경하였음
- 그동안 일본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은 지배구조(G)와 환경(E) 중심의 대책을 내놓았으며 최근에는 사회(S)의 확산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 증권회사는 시장의 자금부족 해결과 금융중개 기능의 충실화를 목표로 ESG 금융상품을 설계, 취급하고 있으며 ESG 부서를 설치하여 경영전략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음
- 미즈호 파이낸셜의 자회사 애셋 매니지먼트 One은 ESG를 투자대상 선정의 판단기준으로 설정한 펀드 상품을 개발하였으며 2021년 12월 순자산총액 1조엔을 돌파
- 노무라증권에서는 2019년 조달자금 전체를 지속가능한 사업에 사용하는 '지속가능성 FITs'(Flexible Issuer's Transactions)'를 개발하였으며 현재까지 3개사에 발행함
- 다이와증권은 지속가능성 관련 M&A 자문·투자·펀드운용을 통한 사회과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속가능성 솔루션 추진부서의 신설과 지역사회를 위한 재단 설립을 추진함
- ESG 투자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적 기류임을 인식함에 따라 일본 정부와 관련기관은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와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증권업계에서도 ESG 경영 전략은 더욱 확대될 것임

국내외 제약바이오기업의 ESG 대응 현황 및 시사점

- KDB 미래전략연구소 22.02.09

A

-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이 10년 이내에 탄소 중립 및 유의미한 폐수, 폐기물 저감 계획을 수립 중이며, 점차 공급망 내 업체들에 대한 적용이 시행될 전망
- 대부분의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르면 평균적으로 2030년까지 탄소 중립 혹은 그에 준하는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투자에 나서고 있음. 스위스의 다국적 제약사 Novartis는 북미 및 유럽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비율 100%를 달성하였으며, 2030년까지 탄소 중립(Scope 3), 물 중립, 플라스틱 중립을 실행할 계획임을 발표
- 의약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포장재와 관련된 활동 및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재사용 용기, 주사기, 오토인젝터 등의 회수 및 포장용기 간소화, 플라스틱 소재 대체 관련 연구가 진행 중임.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많이 사용되는 일회용 기반 시스템(Single Use System)에 대한 대체 시도가 있으나, 일회용 기반 시스템의 장단점이 명확한 관계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글로벌 제약사들은 자사의 ESG 원칙을 공급망 내 기업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행보를 시작하였고, 각국의 규제기관은 ESG 관리가 미흡한 기업에게 제재를 가할 예정임
-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2021년 회원사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회원사들의 약 74%가 ESG 경영을 도입 혹은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남. ESG 대응의 애로사항으로는 복잡한 평가 기준, 전문인력 부족, 비용 부담, 가이드라인 부재 등이 언급됨
- 국내 제약사들은 과거 CP제도 도입(2007), 리베이트 쌍벌제(2010)의 도입으로 준비, 윤리경영 및 사회공헌(CSR) 관련 역량이 갖춰져 있으나, 환경지배구조 측면에서는 비교적 최근 규제가 도입된 관계로 기업들의 준비가 필요함
- 대형 제약사를 중심으로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에너지경영시스템(ISO50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과 같은 인증 획득, 공급망 관리감독, 정보보안 강화 노력 등이 이뤄지고 있음
- 또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연이어 의약품 사업에 진출함에 따라 의약품 수출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ESG 경영의 도입은 한국이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ESG 경영 도입 초기로, 일부 대형 제약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ESG 도입 준비 단계에 있음. 다수의 기업들이 ESG 전담부서 신설, 관련 인증 획득 추진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요 기업의 대응사례 및 관련지침이 발표되고 있어 기업들의 대응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E

수소경제의 확대와 보험산업

- 보험연구원 22.02.07

- 수소는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전용 탐지기가 없으면 누출을 식별하기 어렵고 점화 온도가 매우 낮아 쉽게 점화되며, 육안으로 불꽃의 식별이 어렵다는 특성을 지님
- 2009~2018년 수소에너지 관련 손실(loss cost)의 72%는 화재에 의한 손실로 집계되었으며, 수소가 금속 재료와 접촉할 때 나타나는 수소 취화(Embrittlement) 현상에 의해 저장 용기나 파이프라인에 균열(Hydrogen-assisted Cracking; HAC)이 생길 위험도 있음. 또한 수소 산업은 전기분해기술 오류와 액화수소 플랜트의 폭발로 인한 사업중단 위험이 있음
- 글로벌 보험회사는 생산물보증보험(Product warranty insurance)과 같은 개별적인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뿐만 아니라 수소에너지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 Munich RE는 전기분해 장치와 연료전지 시스템에 대해 생산물보증보험을 제공하여 부품 고장이나 성능저하로 인한 과도한 수리 및 교체비용을 담보하고 잠재적으로 핵심 부품 또는 공급 시스템의 부실을 방지함
- 가령, 2021년 Munich RE는 에너지 회사 SGH2의 랭커스터 수소 플랜트에 생산 이행보증(Output performance guarantee)을 제공함. AIG는 공장, 파이프라인과 운송,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수소 보험을 제공함
- AXA의 자회사인 NER(New Energy Risk)은 우리나라 화성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9 발전소의 운영을 맡은 미국 Bloom Energy에 15년간의 모니터링 계획과 보험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필요한 사업성과 기술력을 보증함
- 글로벌 보험회사는 수소에너지 가치사슬에 대한 위험인수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로서 수소에너지 산업에 투자하고 있음
- 2021년 10월 AXA는 수소 투자 플랫폼인 Hy24가 관리하는 15억 유로 규모의 청정수소 인프라 투자펀드에 주 투자자(Anchor investor)로 합류하였음
- 해당 펀드는 임팩트 펀드로 설정 및 관리되는 가운데, 녹색 수소 생산부터 수소 충전소까지 수소에너지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투자 포트폴리오로 운영될 예정임

2022년 ESG의 주요 이슈는?

- 하니금융경영연구소 22.02.07

A

- ESG가 주류로 자리매김하는 추세로 2022년 ESG 관련 주요 이슈를 점검함
- (뉴 아마존 효과) 대기업 온실가스 배출 보고 범위가 공급망 전체인 Scope3으로 확대되면서 이들의 협력업체에도 탄소 배출 감축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
- 탄소발자국 측정 범위는 직접적인 기업활동 중 배출(Scope1), 기업이 소비한 에너지 생산에 발생하는 배출(Scope2),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배출(Scope3)로 구분
- (민간자본 패러다임 전환) 탄소집약산업의 자금조달처로 거론되었던 사모펀드도 기후기술 선호 증대, 기후공시 압박 등으로 기후금융의 주요 참가자가 될 것임. 원자재 가격 상승 속 PE는 높은 수익성이 보장되는 화석연료 산업 투자를 확대했는데, 탄소집약산업의 중장기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상황 변화가 예상됨
- (행동주의 급증) ESG 투자전략이 네거티브 스크리닝 중심에서 기업 관여로 나아가고, 조직 내부적으로도 직원들의 요구가 강화되며 행동주의가 확산될 전망이다
- 2022년에는 ESG 평가 표준화가 진전되면서 그린워싱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공시 표준 수립) 기후금융공시협의체 TCFD 지침이 글로벌 ESG 기업공시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어 일관성있고 비교가능한 ESG 기업공시 체계 수립이 기대됨
- (그린라벨 활성화) EU의 SFDR(금융기관 대상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 등이 금융 상품의 그린라벨이 되고, ESG 금융상품의 등급체계가 구축되면서 친환경 금융 투자에 대한 검증수단이 강화될 전망이다
- ESG 평가 시스템이 선진화되는 가운데, 금융기관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투자자는 ESG 판별 강화에 따른 투자상품 선별화 진행, 글로벌 통화간축 전환과 맞물린 자산가격 재평가 위험에 유의하고 무조건적인 ESG 투자도 지양할 필요
- ESG 펀드 상품이 기술주와 바이오주에 편중(20대 ESG 펀드 보유 상위 주식: MS, 알파벳, 애플, 이클랩, 써모피셔 사이언티픽)되어 최근 자산가격 조정 위험이 증대함
- 금융회사는 ESG 평가의 국제적 표준 수립과 그린라벨 도입, Scope3 확장 등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판매상품의 ESG 검증을 강화하여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금융시스템 내 기후리스크 반영 범위가 공급사슬 등으로 확장됨에 따라 익스포져 측정 시스템 고도화 및 관련 인력 확충 역시 중요한 과제임

UN SDGs 연계 ESG ETF

목표 9.

회복력 있는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9 산업, 혁신, 사회기반 시설



DRIV

Global X Autonomous & Electric Vehicles ETF

- 글로벌 기업 중 자율주행 및 전기자동차 개발 관련 기업에 투자. 반도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항공우주, 자동차 제조 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기차 15개 기업, 전기차 부품 30개 기업, 자율주행 30개 기업 총 75개 기업에 투자
- 개별 종목 비중 상한은 3%로 낮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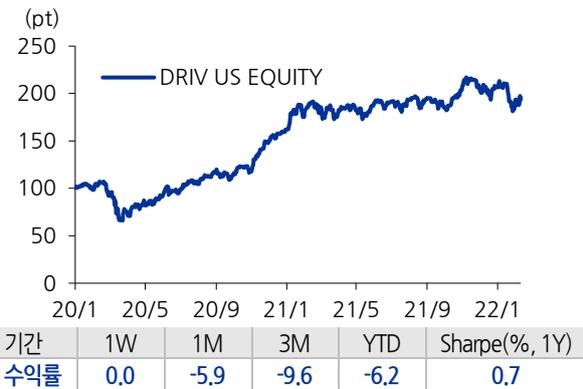
ETF 개요

티커	DRIV US EQUITY
상장일	2018-04-17
운용사명	Global X ETFs/USA
총보수율(%)	0.68
기초지수	Solactive Autonomous & EV Index
가중 방식	Basket
주당 가격(달러)	28.64
보유종목 수	79
시가총액(백만달러)	1,304

시총/전략/지역 Broad Market / Blend / Global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2년 2월 11일 기준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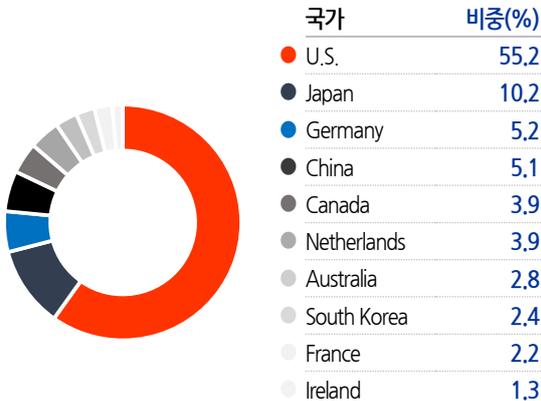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2년 2월 11일 기준
주: 2019.12.31 증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TOP 10 보유 종목

티커	이름	시가총액 (백만달러)	비중 (%)
GOOGL US	Alphabet Inc	1,774,107	3.2
AAPL US	Apple Inc	2,752,111	3.2
7203 JP	Toyota Motor Corp	316,962	3.1
QCOM US	QUALCOMM Inc	185,549	3.0
NVDA US	NVIDIA Corp	598,725	3.0
INTC US	Intel Corp	193,949	2.9
TSLA US	Tesla Inc	888,817	2.7
HON US	Honeywell International	128,241	2.5
MSFT US	Microsoft Corp	2,211,875	2.1
GM US	General Motors Co	70,951	1.7
합계			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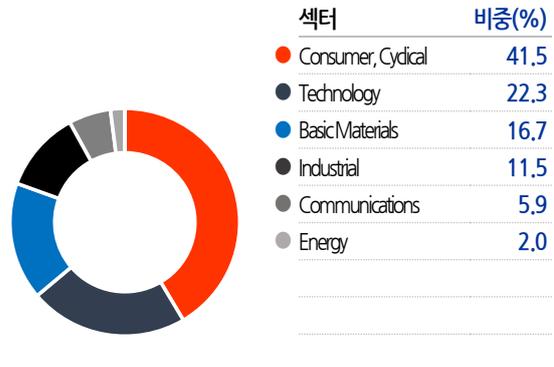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2년 2월 11일 기준

국가 구성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2년 2월 11일 기준

섹터 구성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2년 2월 11일 기준

국내외 주요 지수 추이

MSCI Global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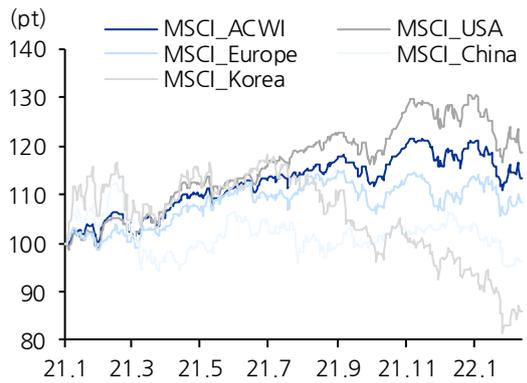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ESG 회사채 TR 지수 추이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MSCI ESG Leaders 국가별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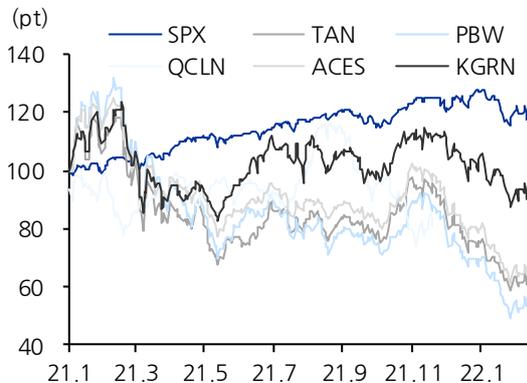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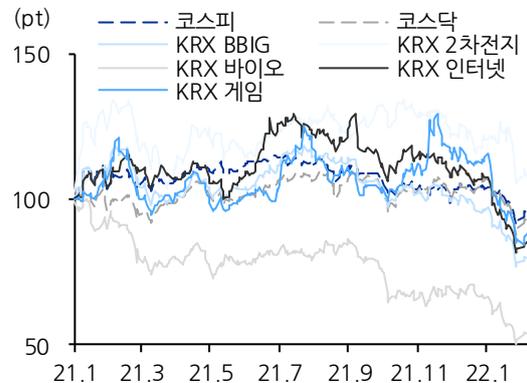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대체 에너지 ETF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K-뉴딜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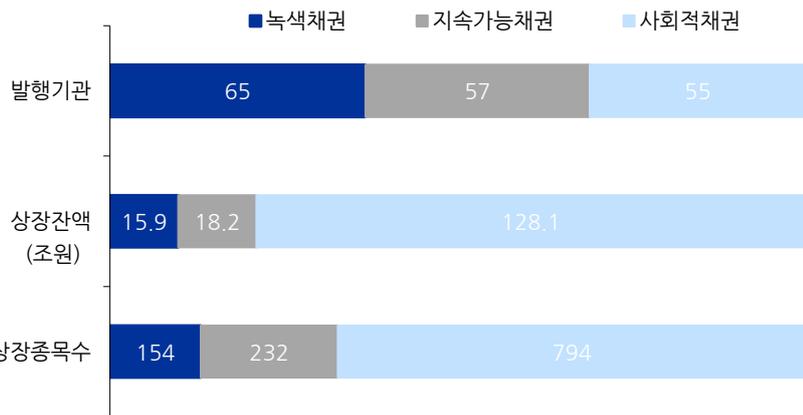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신규 상장된 사회책임투자채권

채권종류	종목명	상장일	표면이자율	상장잔액 (백만)
사회적채권	한국장학재단 22-1(사)	2022/02/11	2.43700	5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63(사)	2022/02/10	2.42600	310,000
지속가능채권	애뮤온캐피탈 164(지)	2022/02/09	3.34600	25,000
녹색채권	한화 233-1(녹)	2022/02/08	3.10000	100,000
녹색채권	한화 233-2(녹)	2022/02/08	3.41300	50,000
지속가능채권	전북은행 26-02 이 1 갑 4(변)(지)	2022/02/07	1.73000	100,000

자료: SRbond, 유진투자증권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현황



자료: SRbond, 유진투자증권

주: 발행기관은 종류별로 발행한 기업의 경우 중복하여 산출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6%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4%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1.12.31 기준)